

문 의	특허심사3국 멀티미디어방송심사팀	팀 장 장현숙 서기관 정재우	042-481-8332 042-481-578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18년 12월 27일(목) 배포 즉시 보도 바랍니다.		

재난 사고, 신속한 재난 방송이 생명을 살린다!

- 재난 방송 기술 관련 특허 출원 증가 추세 -

딩동~. “오늘, OO지역 호우특보 발효로 많은 비가 예상되니 하천 저지대 등 안전에 유의바랍니다.”

위와 같은 재난 방송은 다양한 재난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대형 재난 및 사고 정보를 국가가 통합·관리하여 신속하게 해당 지역에 통보하는 방송통신 기술을 말한다. 재난 사고로 인한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 방송 기술이 필수적이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재난 방송 기술 관련 특허가 꾸준히 출원되고 있으며, 내국인 출원은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붙임 1]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6년간 내국인이 출원한 284건을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148건(52%), 개인 88건(31%), 대학교 및 연구소 37건(13%), 대기업 11건(4%)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출원이 중소기업 및 개인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붙임 2]

세부 기술별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시설 및 장비 분야가 128건 (45%), 재난 정보 전송을 위한 방송통신 기술 분야가 119건(42%), 재난 방송 수신 단말 분야가 31건(11%)으로 나타났다.[붙임 3]

재난 방송은 신속함이 그 생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에서 재난 방송망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¹⁾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 11월부터 중부권부터 시작하여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향후 재난 방송 기술은 재난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표적 4차 산업 기술인 빅데이터 및 사물인터넷(IoT) 등과 접목되어, 지능화된 재난 정보 관리 시스템으로 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가 재난 방송망과 지역 및 기관별 재난 방송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다양한 재난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맞춤형 재난 방송 시스템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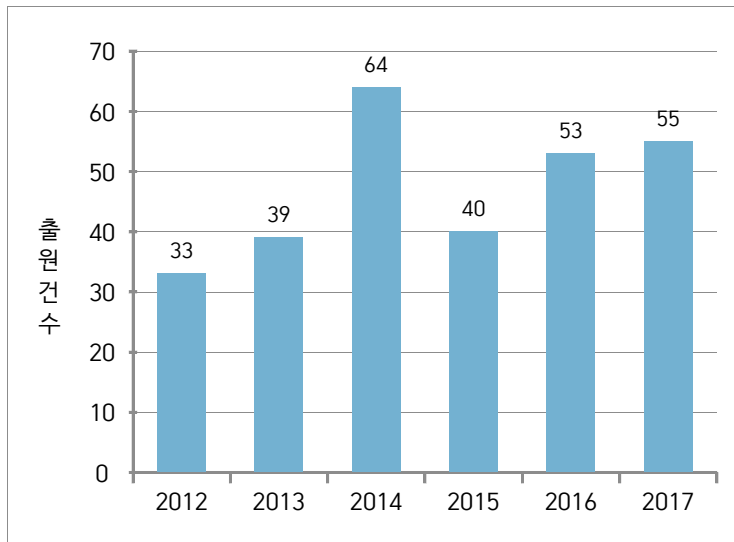
특허청 장현숙 멀티미디어방송심사팀장은 “국내에서도 대형 재난 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통합 관리형 국가 재난 방송 체계를 갖추어 대형 재난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며, “다양한 재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재난 방송 기술은 4차 산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기술 개발이 요구되므로, 정부 및 관련 업체들이 협력하여 재난 방송 관련 기술 개발 및 우수 특허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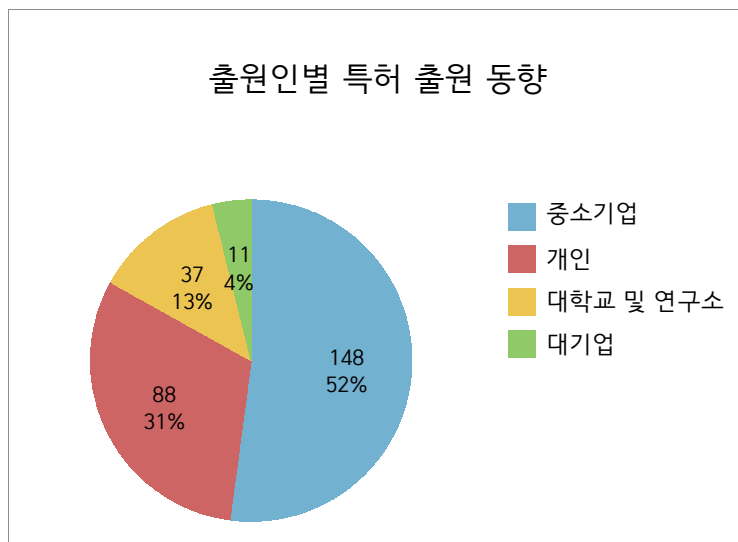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특허심사3국 멀티미디어방송심사팀 서기관 정재우(☎ 042-481-5780)로 연락 바랍니다.

1) 국가재난안전통신망 : 행안부, 군경,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 관련 정부 기관의 개별 통신망을 PS-LTE(Public Safety LTE)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 단일망으로 통합하여, 재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재난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붙임 1] 재난 방송 기술 관련 연도별 특허 출원 동향(내국인)



[붙임 2] 재난 방송 기술 관련 출원인별 특허 출원 동향(내국인)



[붙임 3] 재난 방송 기술 관련 세부기술분야별 특허 출원 동향(내국인)

